

가구저널

www.mfj.co.kr

Furniture Journal since 1993

성장기 진입한 온라인 가구시장

TREND Bathroom Furniture

PEOPLE 이상훈[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TECHNOLOGY 소리 없이 천천히 달하다

8



Retro glamorous

Miss Sixty Group by Studio63



스튜디오63(Studio63)은 이탈리아 플로렌스(Florence) 지역에 기반을 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로, 1998년 Piero Angelo Orecchioni와 Massimo Dei에 의하여 설립됐다. 이들은 패션숍, 부티크 호텔, 바 등 주로 트렌디한 공간을 작업하고 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역의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얻는 디자인 영감에 1960년대 디자인 트렌드였던 미래주의(futurism)를 베이스로 건축, 디자인, 그래픽 등의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를 믹스 업(mix up)시키고 있다. 인테리어 작업뿐만 아니라 매장 내의 집기도 직접 디자인하며, 근래에는 유행중인 레트로 스타일의 컬러와 소재, 디테일도 사용하고 있다. 재기발랄한 그들의 디자인 감각을 밀라노와 도쿄, 뉴욕 등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Miss Sixty(미스 식스티) 그룹의 매장을 통하여 자세히 들여다본다. | 정영남 기자

자료제공 : gdInternational 02-3446-1520

각 나라 문화를 믹스

Miss Sixty Retail Design store Tokyo

도쿄 지점은 다른 도시의 미스 식스티 매장보다 월등히 크다. 각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world concept'에 따라 피팅룸은 일본의 가부키 극장에서 얻은 영감을 반영, 특별한 벽 처리 없이 블랙 벨벳 커튼으로 완성했다. 메인 디스플레이 공간의 계단과 천장도 브라운에서 옐로까지 3단계 컬러의 점증적인 효과를 내어 패턴화 했다.

1970년대 옵티, 일루전 테크닉은 벽면 장식에서 드러난다. 액세서리 디스플레이인 투명 아크릴의 반구를 벽을 따라 설치하여 버블 효과를 주었으며, 원뿔 모양의 크롬 타일 안에는 라이팅 소스를 삽입하여 벽면을 채웠는데 여러 개의 거울로 인하여 반사효과를 얻는다.

또한 매장 한 면은 라운드 처리한 스퀘어 공간 안에 프로젝터 공간을 마련하고 앞쪽에는 프렌치 암체어를 커플로 배치하여 마치 극장의 한 단면을 보는 듯, 쇼핑공간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장소로 변환시켰다.





옐로 컬러 안의 화이트

Miss Sixty Retail Design Store Milan

패션의 도시 밀라노의 중심가에 위치한 미스 식스티 밀라노. 1, 2층으로 구성된 작은 크기이지만 메인 컬러로 옐로와 화이트를 사용, 실제 면적보다 넓어 보인다. 이 공간은 1960년대 분위기의 울이 긴 화이트 카펫의 사용이 인상적이다. 유려한 곡선형의 카펫은 바닥을 따라 벽과 종이층의 천장에까지 적용되어 공간에 특색을 주고 있다. 이는 크롬 처리한 기둥, 디스플레이 진열대, 테이블 등 매장 집기류와 어울려 미스 식스티 본연의 컨셉인 글래머러스함을 고스란히 전하여준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구 형태를 반복한 세라믹 파티션과 수술 부분을 조명으로 처리한 1970년대의 상징 big flower(빅 플라워) 조명은 악센트 역할을 한다. 또한 크롬 와이어 받침 위의 버블 핑크 패브릭 소파의 배치와 emboss(엠보스) 및 deboss(디보스) 형태의 반복인 맞춤형 세라믹 타일을 벽지 대신 부착함으로써 탄조로운 컬러의 지루함을 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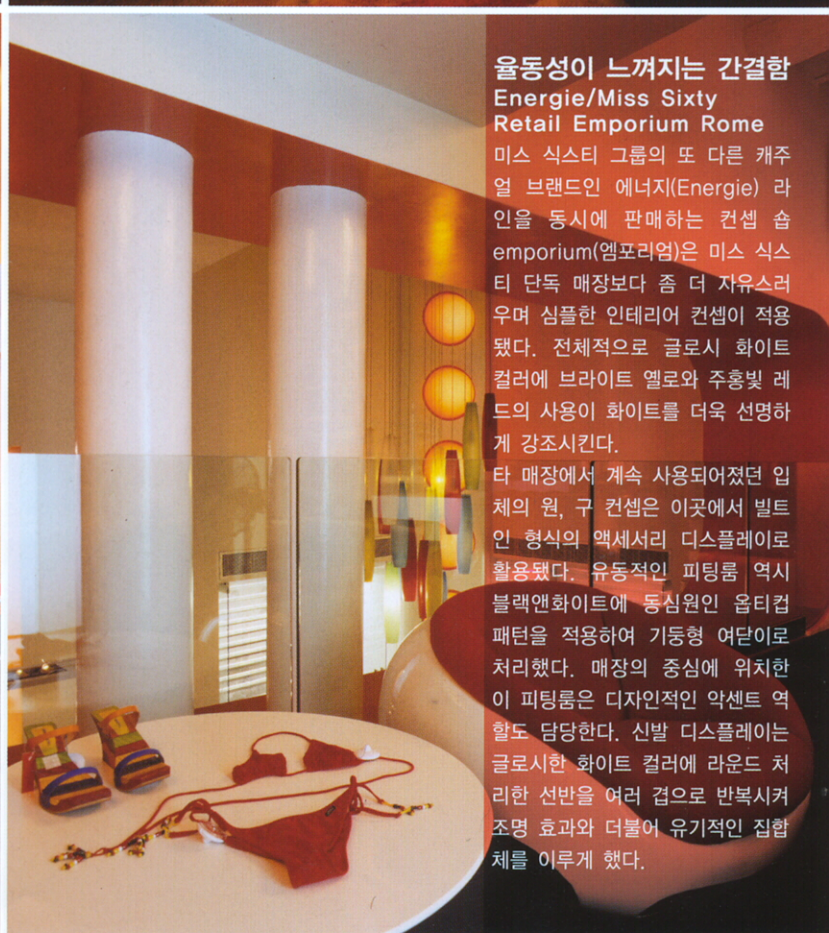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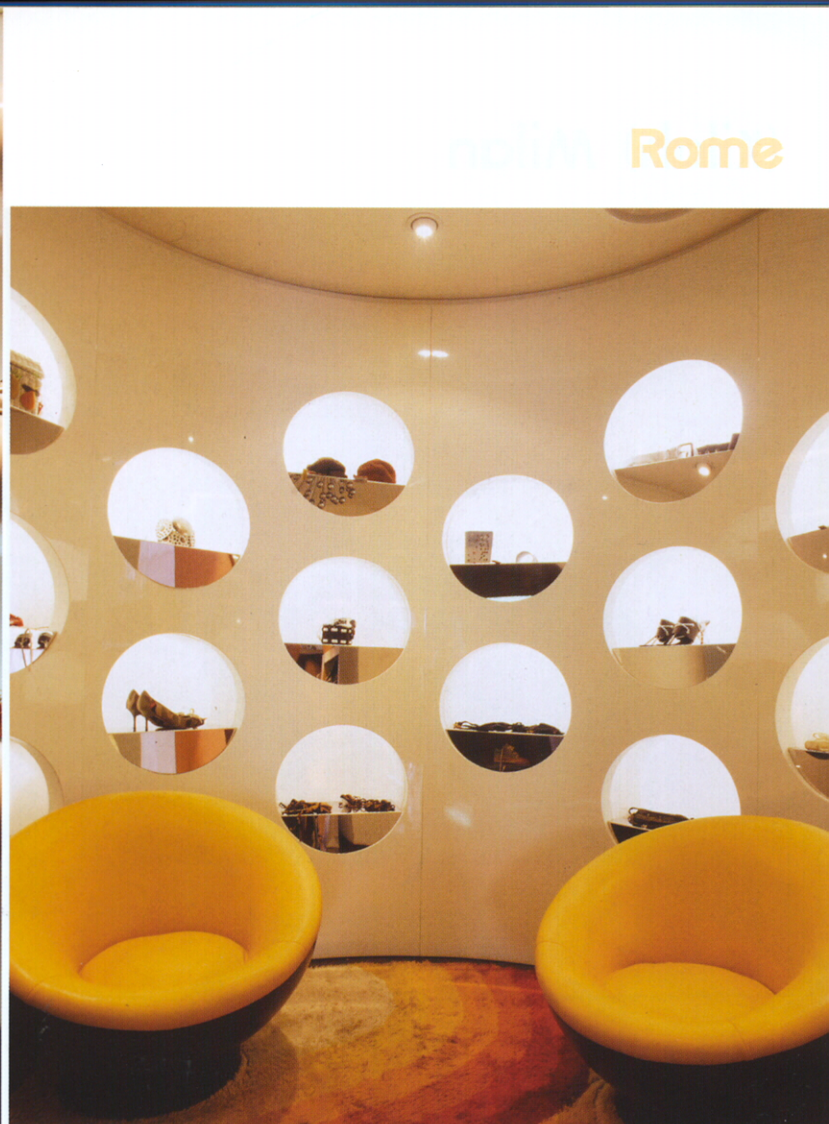


사랑스런 프렌치 스타일
Miss Sixty Retail Design
store Paris

아담한 사이즈의 파리 미스 식스티 매장은 프렌치 스타일의 특징인 'simple & romantic'을 메인 컨셉으로 삼았다. 이곳은 타 도시의 미스 식스티 매장과 비교하여 볼 때 디테일이 거의 없는 점이 특징. 그러나 라임 그린과 라이트 레드의 보색 대비가 고풍스러우면서도 명료한 느낌을 전하여준다.

피팅룸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벨벳 파티션으로 처리하였으며 같은 컬러의 업홀스터드 암체어와 스톨을 배치하여 컬러의 연속성이 느껴지도록 했다. 계산대 뒤의 벽은 플로럴 패턴의 번 아웃(burn out) 벨벳 소재를 사용하여 프렌치적인 디테일을 더하고 있다. 휴식 및 피팅룸 공간과 의류 전시공간은 액세서리 디스플레이를 겸하는 파티션으로 구분하였고, 중앙에는 통로 공간과 기둥의 천장 부분을 티어드 상들리에 디테일을 첨가하여 럭셔리한 파리의 한 살롱 이미지를 재현했다. 상들리에 공간에는 다시 밀라노에서 사용되었던 옅은 킷 화이트 카펫으로 처리하여 미스 식스티 메인 컨셉인 레트로 글래머를 보여주고 있다.





움동성이 느껴지는 간결함 Energie/Miss Sixty Retail Emporium Rome

미스 식스티 그룹의 또 다른 캐주얼 브랜드인 에너지(Energie) 라인을 동시에 판매하는 컨셉 숍 emporium(엠펙리엄)은 미스 식스티 단독 매장보다 좀 더 자유스러우며 심플한 인테리어 컨셉이 적용됐다. 전체적으로 글로시 화이트 컬러에 브라이트 옐로와 주홍빛 레드의 사용이 화이트를 더욱 선명하게 강조시킨다.

타 매장에서 계속 사용되어졌던 입체의 원, 구 컨셉은 이곳에서 빌트인 형식의 액세서리 디스플레이로 활용됐다. 유동적인 피팅룸 역시 블랙앤화이트에 동심원인 옵티컬 패턴을 적용하여 기동형 여담이로 처리했다. 매장의 중심에 위치한 이 피팅룸은 디자인적인 악센트 역할도 담당한다. 신발 디스플레이는 글로시한 화이트 컬러에 라운드 처리한 선반을 여러 겹으로 반복시켜 조명 효과와 더불어 유기적인 집합체를 이루게 했다.

(Kilah) Milan

합성세계의 인조도시_Kilah Milan

미스 식스티 그룹의 또 다른 패션 브랜드인 Kilah(킬라)는 평기한 영캐주얼이 메인 컨셉. 밀라노 킬라 매장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 같은 느낌이 들도록 화이트 컬러보다는 블랙을 주로 사용하였고 비비드한 레드, 그린, 딥 옐로 등의 큐브 형태 집기를 악센트로 삼았다. 킬라의 주 고객층인 십대들이 좋아하는 일본 만화, 네온 조명, 플라스틱, 인조 모피 등의 모티브를 매장 곳곳에 적용함으로써 '합성세계의 인조 도시'와 같은 다운타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즉 관능적이고 다이내믹한 공간 분위기를 최대한 살린 것. 백 네온 라이팅을 사용한 액세서리 선반과 산호초 모양의 플라스틱 옷걸이들이 독립 예술가의 설치 작품처럼 느껴진다.





양성(兩性)의 공존성

Energie/Miss Sixty Retail Emporium Barcelona

스페인의 국제 도시 바르셀로나 매장은 태양의 나라로 칭송되는 스페인의 열정을 담았다. 풍부한 태양의 빛을 모티브로 거대한 회색 시멘트 공간과 옐로 컬러의 독립 공간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상반된 두 패션 라인이 묘하게 공존하는 느낌을 줬다. 여성 공간인 미스 식스티는 소프트한 이미지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의 남성 공간은 시멘트 소재와 뉴트럴 컬러를 사용하여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이런 두 공간의 상호 대비가 하나의 관능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르데코 풍의 자유 곡선 나뭇결이 느껴지는 디스플레이는 전설적 건축가 가우디의 위트가 느껴지면서 다시 한 번 이곳이 바르셀로나임을 알게 된다.